

전남 학생 작가들 도서, ‘목포도서관’에서 만나요

전남교육청, ‘나도 작가 프로젝트’ 창작물 목포도서관 소장

전남 학생 작가들의 도서가 전라남도 교육청목포도서관에 소장돼 독자들과 만난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학생 책 출간을 지원하는 ‘나도 작가 프로젝트’를 통해 빛을 본 학생 작가들의 책 200여 권을 목포도서관에 기증해 소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도서 기증은 ‘제2회 학생 책 출판 작품전시회’에서 전남 학생 작가들의 도서를 인상 깊게 지켜본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관장 김준호)의 제의로 성사됐다.

이에 따라, 전남의 학생들이 ‘나도 작가 프로젝트’에서 글쓰기와 편집, 출판 과정을 거쳐 정성스럽게 만든 도서가 목포도서관에서 소장돼 일반 독자들에게 공개된다.

특히, 1년여 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학생들의 창작물이 널리 공유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작성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은 도서관 내 어린이 자료실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대출도 가능하다.

전남의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목포도서관은 지난해 10월 어린이 자료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12월에는 ‘모락모락 놀이터’를 조성했다. 독서·체험·놀이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화와 발전을 꾀하고 있다.

목포도서관은 이번에 기증된 200여 권의 도서와 앞으로 출판될 학생들의 작품을 어린이 자료실에 비치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준호 목포도서관장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책이 도서관에 소장돼 더 많은 독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학



전남교육청·목포도서관 관계자들이 학생 책 출판 작품 도서 기증을 마친 뒤 기념사진 촬영하고 있다.

생들의 창작물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서와 창작의 기회를 확대해 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영길 전남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독서·인문교육의 성과로 출판된 소중

한 학생 책을 목포도서관에서 상시 전시할 수 있게 도와준 목포도서관에 감사하다. 더 많은 학생과 지역민들이 학생들의 작품을 읽으며 글쓰기 교육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함평군 나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주거 개선 앞장

복권 기금 활용... 독거노인 가구 싱크대 및 LED 등기구 교체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대장 김판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에 적극 나섰다.

함평군은 17일 “나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난 13일 복권 기금을 활용해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 불편 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서 복지기동대는 노후화된 싱크대를 교체하고 실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 선반을 직접 제작해 설치했다. 또한, 안전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주방 조명을 LED로 교체하며 생활 환경을 개선해 독거노인의 불편 해소에 앞장섰다.

김판호 나산면 복지기동대장은 “이번

주거환경 개선 활동이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식 나산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항상 헌신해주시는 복지기동대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관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권 기금사업은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복권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활용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

함평/전광훈 기자

강진군-영광군 농업기술센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410만원 기부 지역 상생과 발전 도모, 훈훈한 기부문화 확산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와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지난 14일 상생 발전의 뜻을 모아 고향사랑기부금 410만원을 상호 지역에 기부했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 김순옥 농촌지원과장, 박관우 연구개발실장을 비롯한 강진군 직원 41명은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410만원을 기부했다.

오정숙 총무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에 동참한 강진, 영광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부가 두

지역 간 우호 증진과 기부하고 혜택받는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앞으로도 영광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며 “고향사랑 기금사업으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플린-업’을 추진하는 강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 우리 지역의 좋은 답례품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답례품은 한우, 쌀, 파프리카, 전복 등 강진 대표 농수축산물과 푸소 체험권, 강진사랑상품권 등 다채로운 품목들이 마련돼 있다.

강진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희망하

면 포털 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 후 고향사랑이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에서 대면으로 기부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강진군청 총무과(061-430-3708,3462)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영광군-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17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장성군과 상호 교차 기부를 진행했다.

이번 상호 기부는 영광군 가정행복과와 장성군 가족행복과 직원 40여 명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응원하며 기관 당 200만원을 상호 기부해 지역발전에 힘을 모았다.

오정 가정행복과장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 문화가 지속해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영광/이현식 기자

“짜 바이 디, 환영합니다” 나주시, 라오스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

상반기 총 660명 외국인 계절 근로자 영농 일손 보탬다

라오스어로 ‘짜 바이디’는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는 뜻이다. 라오스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나주에서 영농 첫 일손을 보탬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주 라오스 계절근로자 34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나주로 왔다.

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근로자, 인솔자, 고용농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을 개최했다.

환영식과 더불어 근로자 준수사항과 이타방지, 인권 문제를 고용 농가와 함께 논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각 농가에 배치돼 5~8개월간 나주지역 영농현장에서 일손을 보탬다.

나주시는 오는 4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도시 간 협약(MOU)에 따른 계절근로자 130명(라오스 59명, 필리핀 71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근로자 496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으로 상반기 660여명의 근로자들이 180여 농가에 투입



된다. 민선 8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3년 356명, 2024년엔 600명이 들어왔으며 올해는 800명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라오스 근로자들이 나

주에서 선진 농업기술과 경험, 소득을 얻고 성실한 근로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되주길 바란다”며 “농가와 근로자 간 고충 해결을 위해 언어 소통 도우미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 관리와 이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한국수력원자력주